

주간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1
Nov. 2022
Vol.10 No.11

통권 99호

- [특집] 2022년 주안에 교회를 돌아본다
- 한해 감사의 제목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감사의 부메랑’ 을 하나님께!



■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20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졌다. 베푸심에 대한 감사도 크지만 무탈함에 대한 감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요즈음의 우리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는 영상으로 시작된 예배는 중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에 이어서 “부메랑을 던져라” 라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되었다. <관계 기사 2·3면>

| 오희경 기자 |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손길이...

'주안에 100호'



<2013년 9월 주안에신문 1호 표지>

또다시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2년을 돌아보니 꼭 감사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로 채우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이 어려워지고 힘이 들수록 오히려 감사를 되새기게 됨을 경험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감사를 떠올려 보게 된다.

주안에교회의 모든 뉴스와 행사, 간증, 소감문, 교육부, 사역국, 목장, EM 등등의 소식을 전달하려 부단히 노력해 온 주안에신문이 100호 발행을 한 달 앞두고 있다. 팬데믹이 공포스럽게 퍼져가던 몇 개월을 제외하면 거의 쉬지 않고, 열악한 조건을 극복해 가며 달려온 수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보람'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지는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다.

신문 발행을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번거로운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글을 써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감동을 드리는 주안에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 오희경 문서국장 |



이인범 장로 무엇인가 감사한 것을 생각하라 하면 먼저 지나 온 것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이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과거가 현재 되었듯 앞으로도 개인적인 작은 일이지만, 현재가 미래가 될 감사를 주님께 먼저 드려봅니다.



나의 온 삶이 드러지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도록 지금까지 해 온 이 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가끔씩 가는 멕시코에 걸음과, 이제는 남미, 칠레를 향한 기도하는 모든 사역에 우리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무엇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주안에 공동체를 섬기면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를 때, 더욱 감사가 넘쳐날 것임을 믿습니다.

김현경 집사 매년 Thanksgiving Day가 돌아올 때 즈음에는, 항상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별 다른 일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암 판정을 받았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셨고,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그 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목장사역을 맡겨주시고, 매주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목원 집사님들과의 교제가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신은지 자매 (코람데오) 마음이 맞는 교회를 찾기 쉽지 않은데 저에게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제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코람데오라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안에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지문' 이 곳곳에 선명하게



이현영 집사 바쁜 일상 잠시 눈을 들어 창밖만 봐도 어느새 아름답게 물든 낙엽 너머 늘 변함없는 그분의 성실함과 모두에게 공평하신 주님의 사랑을 문득 깨닫게 되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었습니다.

처음 제가 감사를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샌드위치처럼 고딩과 중딩 사이에 꽂겨서 하루하루 '잡을 인'을 새기며 겨우 버티는 나를 돌이켜보며 참 번지수가 많지도 잘못 되었다고 느꼈지만, 그 끝에 "넌 정말 내게 그렇게 감사한게 없니?"라며 오히려 내게 감사함을 묵상하는 시간을 특별히 허락하신 거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곱씹어 보니 올 한 해도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시절부터 학교 유명 밴드 소속으로 남들 공부하고 미팅할 때 오직 청춘을 다 바쳐 기타만 쳤다는 남편은 저와 결혼 후에도 밴드 선, 후배들과 흥대에서 연주를 할 만큼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모는 차를 타고 나갈 때면 저희는 어김없이 선택이 아닌 필수, 아니 반강제로 아빠의 애정 리스트 락 앨범을 내내 들어야 할 정도로 그는 음악을 사랑하고 본투비 락커인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찬양팀을 섬기는 같은 목원 분의 강한? 권유와 부탁을 받고 수줍음 많은 남편이 고민 끝에 못 이기는 척 기타를 섬기려고 했었는데.. 그 직후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어 사실상 대면 예배의 문이 닫힌 상태로 몇 년이 흐르면서 남편은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즐기는 듯했고, 성경책에 빨간 줄을 한가득 찢어질 듯 그어가며 성경책이 낡을 정도로 교회 청년부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의 첫사랑을 보냈던 남편이 정작 나와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아무 섬김도 믿음도 보이지 않고 마치 콩콩 언 땅처럼 말라있어 늘 그의 섬김과 믿음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던 저는 그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너무나 오래 바라고 기도했고... 어느덧 귀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찬양팀에서 기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쉬어서 손이 많이 굳었다며... 휴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정작 자신의 일보다 연습을 더 열심히 하는 그를 보며 나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신음과 읊조림에도 반응하시고 그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남편을 통해 경험하고 그를 만지고 함께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글학교를 맡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기보단 어느 순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이들의 미소와 반짝이는 눈망울을 통해 오히려 나를 채우시고 힘주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셨음을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정성훈/김지희 성도 벌써 일년이 지났나 하고 돌아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해를 보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지문이 선명하게 곳곳에 남아있음을 보고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장의 작은 목자로 섬기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자격 없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목원들과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 기도하며 하나됨을 누리는 목장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하라는 올해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달라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을 변화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힘을 얻고 돌아와 앞으로 미국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조유이 형제 (코람데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항상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산소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 영혼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어 계속 용서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미워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나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고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힘듦에 지칠 때 언제나 사랑으로 나의 힘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어렵던 전도를 할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나를 다른 영혼을 위해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딸이기도 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 코람데오 'Friendsgiving Dinner'

‘하나님 은혜, 사랑으로 서로 섬긴 모두에게 감사!’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을 떠올려보게 된다. 코람데오 한어 청년부는 Friendsgiving Dinner를 준비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 25일 저녁, 위해 양태섭 피택장 로남/양영 권사님 댁에 20여 명의 코람데오 청년들이 모였다. 갖가지 음식에 손수 만들어 준비한 디저트까지 더해



푸짐한 밥상이 준비되었고, 국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초콜릿/치즈 풍두는 특별함을 더했다. 코람데오 수련



회 때 식사타임으로 섬겨주셨던 문수경 권사님, 문성훈 집사님 가정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이번 저녁식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코람데오로 묶어주시고 섬리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무리 했다. | 김윤영 기자 |

■ 교육부 추수감사절 뱅킷 스케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이 담긴 데코와 전기숙 권사님이 만들어 오신 스파게티로 꾸며진 추수감사절 뱅킷. IC Kidz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눈이 달린 귀여운 김밥, 과일, 간식 등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기를 함께 응원한다.



■ Kidz가 ICY 에게 보내드 감사카드

EM과 ICY의 속한 학생들과 리더들이 여름 성경학교 및 할렐루야 나이트 등 Kidz 아이들을 매번 섬겨주고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Kidz 아이들이 감사의 글과 함께 한 명씩 가져온 과일과 간식 등을 담아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어린 Kidz 아이들이 언니, 오빠 예배실에 가서 사랑이 가득 담긴 간식 바구니와 감사의 글을 전달하고 있다.

| 류명수 기자 |



■ Serving the Church

Hard Work for the Unity

Last Sunday, to celebrate the Thanksgiving holiday, the English Ministry was given the great privilege of serving lunch to the ICCC community. On the menu this year was a traditional and delicious bibimbap along with a side of bean sprout soup.

Preparations began the week prior, when EM made table decorations and utensils. Many members of EM stayed late into the evening on Sunday, November 13, to craft fall-themed leaf ornaments, cut paper for table coverings, and wrap utensils and napkins.

On Saturday, November 19, various members of EM gathered early in the morning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bibimbap itself. From cutting vegetables, to cooking the ingredients, to packaging the bibimbap, these generous and compassionate volunteers worked throughout the day and into the evening to finish all preparations.

Come Sunday, November 20, the work continued as serving commenced. Volunteers were busy serving the bibimbap,



collecting trash, and doing the dishes in the kitchens. Despite some minor delays in serving, the day was a resounding success thanks to all the dedicated work of the ICCC EM community. As a show of gratitude, volunteers were rewarded with an ice-cream snack after the work was finished.

None of this c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help of many people. A special thank you is in order for our EM leadership, who led the volunteers and

made sure for a successful Sunday. Another thank you to Pastor Kim, as well as the elders and deacons in charge of the cooking. Finally, a great thank you to the many volunteers from EM who helped in preparations, serving, and cleaning. Through their love for God and their will to serve Him, all of this was possible.

From the ICCC EM community, we hope you have a blessed Thanksgiving holiday!

| Christopher Kim |

■ Operation Christmas Child Shoebox

Big Opportunity for the Gospel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Matthew 19:14) 13 boxes, a variety of different toys and supplies, and an immeasurable outpouring of love. That is what it took to successfully execute this year’s EM Operation Christmas Child Shoebox organized by Samaritan’s Purse. According to their website, Samaritan’s Purse has done its utmost to follow Christ’s command by going to the aid of the world’s poor, sick, and suffering. They are an effective means of reaching hurting peopl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food, medicine, and other assistan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is, in turn, earns them a hearing for the Gospel,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for over 50 years.

This year was our second year preparing Christmas Child Shoebox. Everyone



put in the effort and heart, gathering together after an already long Sunday to play packaging tetris trying to fit as many things as possible into the shoeboxes. From blankets to markers to slinkies and toothbrushes, the EM wanted to make sure the gifts were practical and thoughtful. In addition, almost all of us wrote let-

ters filled with encouragement and love. All in all, I can categorically say that Operation Christmas Child was a resounding success; I speak for the EM when I contend that in the end, it was us who received the greatest gift of being able to serve as Christ first served.

| Paul Yang |

선교의 사명 다지고, 새일꾼들 세우고...

■ 페루 장애인교회 예배처소 마련·선교사 지원

주간예교회의 해외선교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멕시코와 아프리카 세네갈에 이어 지난해 캄보디아, 네팔, 니카라과, 중동 국가 선교사를 지원해 현지 복음전도에 동참해 오고 있는데 고대 잉카문명의 발상지인 페루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수도 리마에서 50Km 떨어진 빈민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살롱교회가 예배와 나눔 처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근에 위치한 1천 평방피트 크기의 건물 공간을 맡김하게 수리해서 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아울러 현지에서 전도와 봉사,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페루인 전도사 4명과 신학생 2명의 사역을 지원해 이들이 장차 개척교회 지도자로 훈련 받도록 했다.



■ 멕시코 단기선교(비즈카이노 지역)

코로나로 3년간 막혔던 멕시코 단기선교가 열려 지난 7월31일부터 3박 4일간 루디 로페즈 목사가 시무하는 샌비센페에서 진행되었다.

윤종화 장로를 비롯 26명의 단원들이 참석해 새벽부터 농장으로 떠나는 노동자들 손에 따뜻한 커피와 라면을 쥐어주며 복음을 전했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와 긍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다. 특히 EM 학생들이 참여해 세대간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22년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임직투표

팬데믹으로 3년 이상 미뤄졌던 임직투표가 지난 8월21일 벨리와 OC채플에서 있었다. 교회 헌법과 내규에 따라 당회에서 추천된 임직후보는 시무장로 4명, 시무집사 16명(OC 2명 포함), 시무권사 41명(OC 8명 포함) 총 61명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권을 교부 받은 후, 투표 부스에 들어가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임직 후보들 전원이 총 유효투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택 되었다.



■ 시무장로 취임 감사예배

지난 9월 공동의회를 통해 협동장로에서 시무장로로 피택된 김영기, 배석원, 배진호, 이인범 장로의 시무장로 취임예배가 10월 21일 저녁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이미 과거에 안수를 받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던 네 분은 그동안 주간예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생활과 맡은 사역을 통해 교우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왔다.

각자의 신앙 간증이 담긴 서약문 낭독시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힘을 다해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장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소속 노회장교 김정도 목사, 제리 하먼 목사의 영상축하 메시지에 이어, 이인범 장로님의 대표 답사가 있었다.



말씀을 가슴 깊이, 복음을 땅끝까지...



■ 최혁 담임목사 대외 집회 활기

2022년은 최혁 담임목사가 미 동부, 중부지역 부흥사경회와 교계 대형 집회 주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많았고 가는 곳마다 성령충만 말씀 집회가 되었다.

연초 뉴저지주 소재 두나미스신학대학교가 주최한 신앙수련회 강사로 초빙 받아 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2박3일 동안의 일정으로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했다. 또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 2022 뉴욕 복음화대회'의 주강사로 나서 '테바'라는 주제로 많은 성도들에게 영성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시카고 레이크뷰연합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 주안에라이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코로나로 2년만에 다시 돌아온 주안에라이프(국장 공태용 피택장로) 개학 풍경... 학생들, 강사들 표정엔 반가움과 기쁨이 솟아났다. 비록 예년과는 다르게 짧은 7주간의 가을학기지만 긴 기다림 끝에 찾은 소중한 만남이기에 감사가 더했다. 개강예배 찬송과 기도에 이어 최혁 목사님은 개강 설교를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조명해 설명하시고 연료하신 부모님들과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했다.



■ 주안예세마 60여명 장학금 지급

제4회 주안예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26일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성경암송 실적을 평가해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되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칼리지 재학생 등 60여명에게 단계별로 구분해 장학금 액수를 차등 지급했다. 12학년과 칼리지 재학생들에게 별도의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해 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했다. 금년 총 장학금 지급액은 3만 5,550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매달 한차례 장학위원들 앞에서 암송 평가를 받았고, 제4기 장학금 31명의 장학위원들이 기금을 마련해 주었다.



■ 주일 전교인 점심식사 재개

COVID19 으로 인하여 2년 이상 중단되었던 점심식사가 10월 16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대화와 교제를 더 그리워했던 주안예교회의 교우들은 오랜만에 친교실의 테이블에 앉아서 담당목장에서 제공한 음식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교제를 이어갔다. 첫 번째로 점심식사를 섬기기로 나선 목장은 영커플 목장으로, 늘 교회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에 맨 먼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모여서 멋진 스타트를 선보였다. 가장 젊은 목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드림목장에서 섬기셨는데,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를 쏟아내시며 교회의 가장 어르신으로서의 충분한 본을 보여주셨다.

커뮤니티 섬기고, 성도의 교제도 돈독히...

■ 경찰-소방관 70여명 초청 한식대접

커뮤니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가 지난 4월 18, 19일 양일간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데본셔 경찰서 데미안 와이머 서장을 비롯 경찰관 60여 명, 소방대원 10여 명 등 총 70여 명의 참석자들은 밸리채플에서 준비한 갈비와 한식을 들며 한인교회에서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LA시 12지역 존 이 시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지난해 주안예놀러와 때도 순찰경관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교회와 지역 치안기관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 'IC LOVE' 를 케어하는 '주안예요게벳'

IC KIDZ부서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예배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별히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유아들을 가진 영겨플 부모들을 위해 요게벳 선생님들은 아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어린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만 3.5세~5세로 이루어진 IC JOY공동체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3.5세 미만의 아이들이 언니, 오빠, 누나, 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영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아이들의 부모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영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기쁨 넘친 축제 '주안예놀러와'

독립기념일의 연휴를 교회에서 운동으로 교제도 하고 바베큐를 비롯한 풍성한 음식도 즐기면서 마음껏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는 '주안예 놀러와' 행사가 지난 7월 3일 주안예교회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독립기념일 당일에 진행하면서 해가 저물면 바로 옆에 위치한 셰퍼드교회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를 감상함으로 마무리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행사를 시작해서 알찬 하루를 보내고, 독립기념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됐다. 양 채플에서 예년보다 더 많은 교우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밸리-OC채플 주일예배 연합

9월부터 밸리채플로 OC채플 성도들이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OC채플이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시간으로 인해 준비와 예배 집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주안예교회의 목회 방향에도 맞지 않는 점이 누적되었다.

밸리와 OC는 멀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이지만 OC채플의 성도들은 가까이 주일에는 밸리채플까지 올라와 예배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양쪽 채플의 성도들은 행사때마다 서로 왕래를 하면서 교제를 해왔기에 서먹함 보다는 매주 얼굴을 대하며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 새가족 소개

■ 마더와이즈 훈련 소감

말씀과 삶, 감동의 연속

2022년 4월 저희 부부는 딸의 다가올 둘째 아이 탄생을 위해 이곳 Simi Valley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관계로 Bakersfield에서 30년 넘게 살다 2019년 Seal Beach로 이사 가서 Torrance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계속 Bakersfield 직장에 나갔고 아내는 Seal Beach에서 babysit 하러 다녀서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가능한 한 매 주일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건한 복장과 마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렸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예배 중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되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던 중 Simi Valley로 이사온 후 근처에 교회를 찾아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새로운 교회를 찾아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료차 간 병원에서 만난 분께서 주안에교회를 추천해 주셨고 인터넷을 통해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교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가 지난 9월 처음으로 주안에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날, 차를 주차하려 할 때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차 안에 있는 저희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시고 과일을 도와주시는 것, 차에서 내려 교회로 들어갈 때 입구가 딱 한 곳이라서 정돈된 인상이었고 또 입구 옆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며 주보를 나누어 주시고, 입구 앞에서 저희 부부가 처음 온 걸 아시고 예배당 착석까지 도와주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주안에교회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지고 처음 왔을 때 느낄 소외감이나 서먹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 했습니다.

고전 13:7 “사랑의 회복” 말씀은 내용과 깊이가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 신발과 남의 신발을 신을 때의 편안함, 수고, 불편함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비유로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깨우쳐 주신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저의 부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진리를 추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목사님, 목회 사역자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듯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 저희가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주안에교회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김남건 집사/김혜진 권사 |

날 자유케 하신 하나님 말씀

올해 초 2월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낯선 땅에서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또 초등학교4학년, 2학년이 된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고민하던 중 마더와이즈 광고를 보게 되었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되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시기에 나는 그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아이들이 예쁘게 크는 순간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경을 보려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케이블카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쁜 단풍이 든 산을 다 놓치고 마는 것처럼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시작했던 저는 마더와이즈 첫 날 첫 번째 챗터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 딸아.. 내가 만든 너의 모습 그대로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자유롭게 하길 원한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넌 나쁜 엄마야. 부족한 엄마야. 라고 비난하며 나를 더욱 힘들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믿으며 그런 말들에 의해 나의 기분도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엄마였습니다.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며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만이 사랑과 용납 안정감의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근원이심..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생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니 놀랍게도 제 자신을 비난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곳에 사랑과 참 자유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어머니도 완벽한 육아도 없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앞으로도 아이들과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문제들로 둘러 쌓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도록.. 자녀뿐만 아니라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나를 내어드리고 그 분의 속성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만끽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전과 바뀐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든 나의 마음이 기쁠 때든 매일매일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예화들을 읽으며 또 기도문을 따라 읽으며 그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신기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 이해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 변리연 성도 |

■ 주안에일꾼/ 홍영표 안수집사

"사역을 통해 깨달음과 배움의 은혜가 넘쳐요"

주일 오후 세 시가 넘어갈 무렵 브니엘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나에게 "마지막 쓰레기 봉지를 버려도 되겠냐" 며 환하게 웃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만나뵙게 될 '홍영표 안수집사' 다.

내가 홍영표 집사님께 먼저 인터뷰를 요청 드린 것은 그 분과의 인연 때문이다. 내가 MP채플에서 밸리채플로 옮겨서 아는 분도 없고 어색하고 불편할 때 감사하게도 먼저 "어느 목장이시냐"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냐" "채플을 옮겨서 힘든일은 없냐" 라며 물어봐 주셔서, 언젠가 한번 뵙고 이번에는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 분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다.

홍집사님은 원래 세계비전교회에 다녔고, 2013년 주안예교회로 합쳐진 뒤부터 지금까지 9년째 섬기고 있다.

새가족국 국장으로 2년, 교육 2국장(영아부~IC Power 전까지)으로 3년, 예배국 팀장 2년, 현재는 차량국과 봉사국 팀장으로 1년째 섬기고 있다. 나는 차량국 봉사가 단순히 밴을 운전해서 주일날 몸이 불편한 환우나 연세가 많으신 교인들을 라이드 해드리는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하시는 일들이 많았다.

차량국 봉사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 교회 밴을 세차하는 일부터 교회에 소속된 모든 차량(8대)을 안전하게 점검하는 일, 특히 주일날 사용되는 6, 7호 차량은 2주에 한 번씩 꼭 세차하고 모든 차량은 타는 교인의 안전을 위해 서류관련, 정비점검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봉사국 팀장으로는 (1) 주일 점심 식사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체크하여 구비하고 점심 식사 전 테이블 셋팅 확인 및 점검 (2) 목장별 봉사에 필요한 요령 및 방법 오리엔테이션(필요할 시) (3) 봉사 후 정리,



점검, 쓰레기 정리(끝마무리 전체 점검)까지 하시는 게 봉사국의 일이라고 한다.

내가 듣기에도 매주 하시는 봉사 외에도 하시는 일이 많아, 지치고 힘드실텐데 "나같이 준비가 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실까" 생각하며 주어진 사역을 통해 더 배우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맡기시는 거 같다며 겸손해 하신다.

올 여름에 두 번째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는데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 오히려 내가 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통해, 또 작은 것으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들의 깨끗하고 원석같은 기쁨의 예배로 내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받고, 채우고 왔다고 하며,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사역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하며,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며 아직도 그때의 감동과 은혜로 뺨킨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쏟았다.

| 이성은 기자 |

■ 선교지 소식/ 페루

'주안에교회 지원 예배처소 마련, 지교회도 든든'

주안에교회의 사역위에 크신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 주셔서 저희 페루 과차쿠텍 벤파니아 선교지는 여전히 평안중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임 목사님과 선교부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 제목: 1) 고소에떼르노 교회와 학교 사역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갈 수 있도록, 2) 주안에교회에서 협력해 주시는 현 5개의 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확산해 가도록, 3) 빵공장 사역도 더 활력을 얻고 선교 도구로 쓰임 받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현지에서... |



■ 디지털 지식 따라잡기 (1)

실제와 가상의 세계가 연결된 '메타버스'

2020년 초부터 2022년 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우리는 상상도 못한 큰 변환의 생활을 이어나오고 있다. 우리들은 함께 모일 수가 없어 줌(zoom)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재택근무를 하며 앱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무대가 아닌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문화공연을 감상하고 게임을 즐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날로그 지구의 이런 여러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세상, 디지털화 된 지구를 '메타버스' 라고 부른다. 이 말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란 단어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뒷부분을 합성한 말이다.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워낙 광범위하고 큰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사회관계 서비스망의 혁명' 이라고 부르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기에 이은 제 3의 변화의 물결이라고 한다. 필자도 메타버스란 말을 보도매체와 책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어 흥미를 느끼던 중 한국에 계신 김상균 교수가 쓴 "메타버스"란 책을 읽고 느낀 점과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이뤄지는지를 소개하려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흥미로운 것이 많아 이번 호에는 개괄적인 것만 안내하고 다음 호에 세부적인 것을 기술하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이 메타버스에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연관되어 있고 특히 우리 자녀들 중 10대와 20~30대의 60%~70% 이상에게는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이 새로운 물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살아 갈 우리 자녀들과 공감 능력



을 키우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친근해 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생활이 향상되리라 여겨진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한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같은데 상호간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더 강한 호기심을 높여주는 장점이 메타버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형철 기자 |



■ 벨리 6목장 나눔

매주 줌 미팅으로 해오던 목장 나눔을 격주로 줌과 각 가정에서 하기로 정하고, 양태섭 피택장 로님택에서 첫 모임을 섬겨 주셨다. 새가족들로 구성된 우리 6목장은,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대된다 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가진 가정들이 모여서, 그 열정과 사모함에 함께 기대하게 된다.

왕옥주 작은 목자님은 "새가족들과 함께 하는 6 목장이 아직은 서먹하지만 섬김의 분이 되어 주시는 목자님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 류명수 기자 |



■ 결혼/ 김지혜 · 김민준 커플

코람데오 청년부와 오씨채플 찬양팀 반주자로 오랜 시간 섬겨온 김지혜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김민준 형제를 만나 11월 19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혁 목사님의 주례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가을 햇살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앞으로 주안예교회 영커플 소속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두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청년부와 오씨채플 찬양팀 반주자로 오랜 시간 섬겨온 김지혜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김민준 형제를 만나 11월 19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혁 목사님의 주례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가을 햇살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앞으로 주안예교회 영커플 소속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두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 ICY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ICY 중고등부 예배 30분 전에 전도사님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스몰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 수련회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해요!!

■ 음악 산책/ 할머니의 찬송가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감사와 선’

미국으로 건너온 지 오래되지 않은 나는 추수감사절 휴일보다 추석 연휴가 아직도 더 익숙하다. 한국에서 추석이 되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에배를 드렸다. 그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의 찬송이다. 같은 제목으로 459, 460장에 나란히 자리한 두 찬송 중에서 할머니는 단조 곡인 460장을 좋아하셨는데,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신 후로도 한동안 할머니를 기억하는 의미로 온 가족이 함께 불렀었다.

찬송가 전집 카세트테이프 세트를 머리맡에 두고 항상 들으시던 할머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등 몇몇 곡을 특히 좋아하셨다. 웬지 모를 처연한 느낌으로 할머니가 나지막이 읊조리시던 찬송은 유년 시절 나의 기억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후일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당시 상황들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며 할머니를 추억하게 된다.

음악과 기억은 강력하게 연결된다. 음악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은 감정과 함께 저장된다. 사람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고, 장기 기억은 또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암묵적 기억이란 조건화의 한 형태인데, 특정 사건이나 감정이 음악과 짝을 이뤄 조건화되면 암묵적 기억으로 저장되고, 그 음악을 떠올렸을 때 사건과 감정도 함께 떠오르며 기억을 되살리는 단서로 작용한다. 암묵적 기억은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기억이어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성되지 않지만, 일단 생성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알츠하이머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도 음악은 기억의 편



린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해 내기 어려운 그들에게 젊은 시절에 즐겨 들던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노래의 가사를 기억해 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황과 경험을 정확히 서술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 나의 입술에서 비롯된 감사와 원망은 마중물이 되어 복과 재앙으로 되돌아온다. 닦쳐온 문체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문체 가운데서도 감사드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열매가 보이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넘치는 축복으로 베풀어주실 것이다. | 황성남 기자(지휘자) |

■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를 맡으면서...



오래 전 성가대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병으로 인해 신체가 마비되는 증세를 겪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찬

양을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목소리였지만, 마비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었지만, 전심을 다하는 그분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작은 재주와 경험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드리는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이광영, 이성은, 이에스터,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